

책의 현장에서부터 물러나다

책으로 쓰는 자서전 — 마지막회

김병익 | 문학평론가 · 인하대 국문과 초빙교수

2000년 3월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나는 대표이사직에서 '상임고문'으로 물러났다. 나의 문학과지성 시절은 이렇게 마감됐다. 내게 가장 기뻐던 일은 이제부터 한가한 '독자', 게으른 '필자' 일 수 있게 된 것이며 '책 만들기'의 크고 작은 짐들로부터 놓여나게 된 것이다. 이 즐거움 속에서 나는 '책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었는지도 모르겠다.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나는 '천명(天命)을 아는' 지혜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 단계에 올라서고야 말았고 조속하지 못했던 대신 조로의 기미만은 일찍 느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안팎으로 왔다. 먼저 온 것이 1990년 김 현의 작고였고 그에 이은 1993년 황인철의 타계였다. 김주연 · 김치수와 함께 내 오른쪽 왼쪽에서 나를 부축하고 혹은 앞뒤에서 끌고 밀어준 두 사람은 모두 암과 투병했고 그리고는 49세와 54세의 아까운 나이로 나와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나는 16권의 《김 현 전집》과 두 권의 황인철 추모 문집을 만들었고 목포의 향토문화관에 김 현의 문학비를, 황인철이 파주에 건립한 계명복지관 마당에 그의 초상조각을 세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가고 난 후의 빈자리가 채워질 리는 없었다. 이 충격과 함께, 나의 사유와 감정은 노후해지고 긴장은 느슨해졌으며 육체적인 쇠퇴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나의 때'가 물러가고 있음을 조금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세대간 계승의 뜻에 따라 주식회사로 개편해 나는 이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주변을 정리해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나는 《출판저널》 주간직에서 사퇴했고 서울예술대학의 강사에서도 물러났다. 결코 놓지 않을 것 같던 교정지에도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편집부에 맡기겠다

고 선언하고서 손대지 않았다. 대신 조금씩 한가해지기로 마음먹었고 1993년 8월에 피선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와 1994년 3월의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이란, 이름은 그럴 듯하지만 할 일은 별로 없는 한시적인 직분을 수락해서 나들이를 하는 것 외에는 마음과 몸을 편하게 두도록 했다. 그러면서 나는 문학과지성사를 명실공히 주식회사 체제로 바꾸는 일에 착수했다.

주식회사로 개편하는 문제는 전부터 궁리해오던 것으로 단순히 회사의 틀을 제대로 갖추자는 데만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가 동인들에게 평소부터 말해오며 동의를 받아온 것은 이 문학과지성사는 어느 시기에 이르면 개인에서 개인에게가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출판사의 출발이 동인들의 합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를 통해 돈을 벌기보다는 '문학과지성'이라는 아름다운 '문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꿈으로 삼았고, 그래서 상속이나 이전이 아니라 승계라는 형식으로 그것의 수명을 영구화해야 할 것이기에, 이를 위한 방법은 주식회사가 가장 적절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주주로 영입해서 그들을 문학과지성의 주체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었다.

나는 주식회사의 운영 방식을 잘 아는 직원을 스카우트하며 정관을 만들고 동인들과 상의하며 주주 명단을 구성하는데 특히 신경을 썼다. 문학과지성사가 그동안 쌓아온 전통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주라는 이유로 책을 내달라고 원고를 가져오는 사람은 피해야 했다. 우리는 모름지기 문지의 주주라면 문지의 성격과 체통에 동의하면서 그 작품은 언제든 믿고 출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지키며 인품도 야심이나 사사로움으로 분위기를 깨트리지 않을 신뢰받는 저자이기를 바랐다. 그렇게 심사숙고하며 합의한 주주가 '문지' 동인과 '문사' 동인들, 그리고 김현과 황인철의 미망인들을 포함해 문지 저자들을 중심으로 한 모두 40명이었다. 우리는 주식이 이동해야 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우리의 의지가 완수되지 않도록 했다. 마침내 1994년 1월 3일자로 법원 등기를 마침으로써 문학과지성사는 주식회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발기 총회에서 문지·문사 동인들을 중심으로 이사 및 감사진을 구성했고 나는 3년 임기의 첫 대표이사가 됐다.

동인체제를 편집회의 체제로 확대 개편해

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일종의 '야심적인 작품'으로 자부했다. 우리의 기업 일반이 그렇듯 특히 출판계 역시 창업주가 자신의 회사를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다. 우리는 이 관례를 깨트리고 친인척의 연분이 없는 문학계 후배들에게 계승시켰던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의 동인 집단에서 다음 세대의 동인 집단으로 전례없는 승계 관계를 성립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통이 존중된다면 제2대 동인들은 그의 후배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문학과지성'의 이름을 넘겨줄 것이다. 실제로 '문학과사회' 동인은 우찬재 · 이광호 · 박혜경, 그리고 이들보다 더 후배인 김동식 · 김재인 · 최성실 · 성기완 · 김태동 · 윤병무 · 김태환 · 주일우 등을 영입해 제3

세대를 구성했고 잡지 《이다》를 간행토록 함으로써 나의 첫 비평문 제목대로, 그리고 나의 오랜 꿈이었던 '세대 연대론'을 현실화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주식회사로 체제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획에도 문사 동인들의 참여를 끌어들이고 그들의 위상을 능동적인 것으로 당겨올렸다. 여기에는 그 동인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나와 문지 동인들의 한계도 있었고 또 어차피 그들이 이어받아 일을 해나갈 것이어서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할 것이었다. 이인성과 문사 동인들은 문고판인 〈문지 스펙트럼〉을 기획해 그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편집토록 하는 한편 그들의 제의에 따라 제작하기 시작한 〈문지 산문선〉과 회갑을 맞기 시작한 우리 또래의 기념 문집으로 〈깊이 읽기〉 총서를 그들의 손으로 만들도록 했다. 이런 변화에 앞서 문지 동인들의 회의로 기획과 원고 채택을 해오던 동인 체제를 '편집회의' 체제로 확대 개편해 문사 동인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슬며시 이끌었다.

그리고 1998년 1월의 눈이 무척 많이 내리던 날, 이례적으로 문지 세대들만 모인 신년 간담회가 강화도의 한 모텔에서 열렸다. 여기서 문지의 재정난과 운영 방식에 대한 걱정과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개진됐다. 나는 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며 많은 생각을 해야 했다. 무엇보다 재정난 타개였다. 주식회사로 개편한 이후 이상스레 회사 사정이 나빠져 적자가 누적돼 왔고 서고 마련을 위해 가입한 서울복클럽에 약속한 투자를 해야 했는데, IMF 체제로 일기 시작한 도매상들의 연쇄부도 사태로 큰 손실을 입어야 했다. 한꺼번에 3중으로 만난 어려움을 나는 타개해야 했다. 고민 끝에 문사 동인들과 합의해 증자하기로 했다. 그들은 대주주인 문지 동인 지분에 육박하는 액수를 증자했고 일반 동인들에게도 증자의 기회를 열어놓았으며 주주 구성도 약간 확대했다. 문사 동인들의 지분 확대는 문지의 다음 운영 주체로서 필요한 일이었다. 또 천만 다행스럽게도 서울복클럽을 통해 '협동화 자금'으로 상당액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럼으로써 한시름을 놓게 되면서 나는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날 시기를 2년 후의 봄으로 정했다. 그 결심은 어느 잠 못 이루는 새벽에 문득 이뤄졌는데, 이는 무엇보다 내 자신의 심정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내 두번째 임기가 끝나는 2000년이라면 내가 문학과지성사를 창사한 지 25년이 되는 해고 나는 60대의 중반으로 들어설 것이었다. 더구나 그 해는 20세기와 21세기를 분기하는 연도였고 그것은 전세기의 문화에서 새로운 세기의 문명으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디지털' 하는 해였다. 아날로그 세대임을 자부하며 그 문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아왔던 나로서는 이 '2000'이란 디지털과 나의 길을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었다. 그 결단을 내리는 순간, 나는 갑자기 밝아지고 자유로워지고 앞날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솟구치는 것이었다.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기에 맞춰 퇴임해

나는 적절한 기회에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나의 결심을 흘리면서 나의 퇴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 우선 나의 세대가 만든 문지의 편집원칙을 깨트려야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문지의 진로를 선택할 것이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를 간행하는 데 동의했고 번역소설을 내는 데 앞장섰다. 그래서 문지가 창사 이래 지켜온 높은 문턱을 헐고 다양한 종합 출판을 추진할 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창사 초기부터 오늘의 문지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그러나 영업사 출신이어서 그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었던 최장석 상무를 퇴진시키고 내 뒤를 이을 것으로 내정한 주간 채호기를 상무로 승진시키며 영업을 익혀 회사 운영에 책임질 준비를 시켰다. 때마침 나의 마지막 2년 동안 문지사의 출판 경기가 호조였다. 이문열·신경숙의 소설들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황지우의 시집과 《기형도 전집》이 예상외로 잘 나갔다. 나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후임 사장에게 넘기지 않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2000년 3월의 주주총회에서 나는 예정대로 대표이사직에서 '상임고문'으로 물러났고 채호기가 사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기간 25년 3개월 15일 동안 1천1백65종의 책을 간행한 나의 문학과지성 시절은 이렇게 마감됐다. 신문들은 나의 퇴진을



문학과지성사 대표직에서 물러남으로써 나는 이제 한가한 '독자', 게으른 '필자'일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봄 퇴임 후 《출판저널》과 인터뷰하던 때의 모습.

과분한 대우를 해가며 멋지게 기사화해줬는데 그러나 내게 가장 기뻐던 일은 이제부터 책임에서 벗어나 내 멋대로의 자유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해방됐다는 점이었다. 나는 이제 한가한 '독자', 게으른 '필자'일 수 있게 된 것이며 '책 만들기'의 크고 작은 짐들로부터 놓여나게 된 것이다. 이 즐거움 속에서 나는 '책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정말, 다른 자유처럼, 책으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할 것일까. 〈책으로 쓰는 자서전〉을 마치면서도 내가 소망한 자유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적어도 나는, 이 하잘것없는 글을 연재함으로써 진지한 독자들의 눈을 어지럽히고 《출판저널》 편집자의 손을 거칠게 만들어가면서 '책'이란 것에 여전히 시달려 왔던 것이다.●